

노인단독가구의 주행위와 가구·가전제품의 사용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Major-Living Behavior and Using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by Elderly-Headed Households

권오정* 이용민** 하해화*** 신혜인*** 김형우****
Kwon, Oh-Jung Lee, Yong-Min Ha, Hae-Hwa Shin, Hye-In Kim, Hyou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behavioral patterns of elderly resident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furniture and home appliances by elderly-headed households. For this purpose, field studies that included observation and open-ended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52 households. The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chi-square test by SPSS 14.0 for window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1) Elderly households had more sitting-down style furniture which was a traditional living mode than western style furniture. 2) They experienced inconvenience to use home appliances that were not designed for the aged. 3) Their behavioral patterns were related with family type and income.

키워드 : 노인단독가구, 주생활행위, 가구 사용실태, 가전제품 사용실태

Keywords : Elderly-Headed Households, Major-Living Behavior, The pattern of furniture usages, The pattern of Home Appliance usages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핵가족화와 부모세대와 노인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인단독가구(1인 및 부부가구)의 증가로 전체 노인 가구 중 이러한 노인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25.8%에서 2004년에 51.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인 혼자 또는 부부만으로 형성된 가구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화로 인해 생활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대부분 시간을 주택 내에서와 인근 주변 환경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환경 의존성이 강한 노인에게는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을 이들의 행태적 특성에 맞게 지원성 높은 환경체계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주생활행위에 근거한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가구 및 가전제품의 사용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노인의 주생활 특성에 맞는 가전이나 가구의 개발·보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 *정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8-313-C01002)의 일부임.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이고 노인단독가구(노인 1인 혹은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자로서 예비조사를 거쳐 52가구, 74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자의 현장답사를 통한 관찰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통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보유가전제품 사용시 불편사항, 실별 가구 보유 현황과 형태 및 용도, 가전 보유 현황과 보유실 및 사용기능,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주행위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68.9%, 남성이 31.1%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연령은 60세 이상 75세 미만이 51.4%, 75세 이상이 48.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의 비율이 각각 50%로 동일하였다.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57.7%, 2인가구가 22.0%로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 월소득¹⁾이 154만원 미만인 가구가 75.0%로 154만원 이상인 가구(25.0%)보다 많았다. 가구별 주거특성으로 주택규모는 전체 평균

1) 월소득은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2008, 국토해양부)에서 사용된 저소득층과 중·고소득층을 구분하는 '154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25.6평으로 10평대가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0평대가 28.8%, 30평대가 17.3%, 40평대 이상이 15.4% 순으로 많았으며, 10평대 미만은 3.8%였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이 67.3%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는 17.3%, 단독주택은 15.4%였다.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40.4%, 10~20년 거주가 38.4%, 20년 이상이 21.2%였으며, 주택 경과년수는 10~20년이 44.3%, 20년 이상도 40.4%를 차지했고, 나머지 15.4%는 10년 미만이었다.

2. 노인단독가구의 가구 보유 현황과 사용 실태

주거공간에서 가구의 역할은 크게 작용하는데, 어떠한 종류의 가구가 놓이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고 생활양식이 표현되며 가구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강형구 외,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가구보유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보유 가구 현황을 각 실별로 살펴보면, 침실²⁾에는 장롱(96.2%), 문갑(59.6%), 서랍장(57.7%), 화장대(50.0%), 침대(46.2%)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침실²에는 침실¹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수의 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주로 장롱, 서랍장, 침대 등이 있었다. 거실에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파(46.2%)와 장식장(36.5%)이 많이 배치되었으며, 부엌에는 작업대와 상·하부 수납장이 하나의 부엌 가구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의 가구는 100%의 보유율을 보였다. 이 밖에 식탁 및 의자, 수납장은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외의 가구들의 보유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아, 부엌에 배치된 가구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욕실¹의 경우도 부엌과 마찬가지로 양변기(98.1%)와 세면대(76.9%), 수납장(88.5%)을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욕조를 보유한 가구는 36.5%였다. 마지막으로 현관에는 대다수가 신발장을 보유하고 있었다(82.7%). 이러한 각 실의 보유 가구 실태를 20대~60대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방의 가구/주생활 행위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강형구 외, 2005) 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단독가구는 침실(안방)의 침대와 화장대 보유율이 낮고, 문갑의 보유율이 2배가량 높았다.

보유가구의 좌식·입식 가구 형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입식가구의 비율이 높지만, 각 실별로 차이를 보인다. 침실 1·2는 좌식가구의 비중이 높고, 거실의 경우 좌식과 입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부엌은 입식가구 비율이 높다. 최근 침실의 침대배치가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입식생활이 대중화되어가는 있지만, 아직도 노인단독가구는 좌식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사용 용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몇 개의 가구에서는 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구를 사용 안하는 경우는 그 가구가 사용자에게 필요 없거나,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2가지가 주된 이유에 속한다. 침실1·2의 침대의 경우 사용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침대

에서 취침을 하지 않고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는 등의 소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수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5가구(9.6%)가 부엌 상부수납장을 사용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부수납장이 높게 달려있어서 노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보여진다. 식탁과 식탁의자의 경우도 부용도와 사용안함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식탁을 식사하는 용도보다는 음식이나 약, 또는 소형 주방가전 등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식탁을 식사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식탁의자의 사용 안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노인단독가구의 가전제품 보유 현황과 사용 실태

1) 노인단독가구의 가전제품 보유 현황과 사용실태

가구 사용실태와 마찬가지로 노인단독가구만의 가전제품 사용 특성을 보이는데, 노인단독가구의 가전 제품 보유 현황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인단독가구는 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의 주방가전과 세탁기, 청소기, TV, 에어컨, 전화기 등의 가전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수요예측팀이 2006년 조사한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조사'의 전국 가전기기보급률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일반 가정과 동일한 가전제품 보유율을 보였다. 노인단독가구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전화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었고, 정수기와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제품(프린터 등)의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화기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일반 가정에서는 일반 전화기만큼 휴대폰을 많이 쓰지만, 휴대폰 보급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노인들은 아직도 집전화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김치를 중요시하고, 김치를 담그고 보관하는 습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김치냉장고를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국 전체 가구 평균 컴퓨터 보급률은 75.1%인데, 노인단독가구의 21.2%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노인단독가구의 노인들은 컴퓨터 접근가능성이 낮고, 그에 따라 컴퓨터 사용 능력도 낮은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각 가전제품의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살펴보면, 냉장고나 가스렌지,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의 주방가전은 주로 부엌 및 식당에 있었으나, 김치냉장고는 부엌/식당 외의 베란다나 거실, 침실 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부엌이 김치냉장고와 같은 대형 주방가전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계획되었고 또한 협소하기 때문에, 부엌과 식당외의 남은 공간에 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세탁기의 설치위치도 베란다와 욕실, 다용도실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유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설비와 공간 확보 측면에서 배려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베란다나 욕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TV와 전화기는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비율이 높았고,

2) 본 연구에서 2개이상의 침실과 욕실을 갖고 있는 경우, 규모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침실과 욕실을 침실1, 욕실1로 명명하였다.

두 제품 모두 주로 거실과 침실에 설치하였다.

다음으로 가전제품을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원래의 기능(단순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신 가전제품은 한 제품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출시되지만, 실제로 노인들은 주로 단순기능 사용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청소기, 에어컨 등은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도 노인거주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자식이나 주변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해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필요하여 구입하였으나, 사용하기에 불편하여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의 보유가전제품 불편사항

<표 3>은 자유응답식으로 조사된 보유가전제품의 사용시 불편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청소기, 세탁기, 전자렌지,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전기밥솥 순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조사되었고, 이러한 가전제품은 앞서 조사된 가전제품 사용용도에서 ‘사용안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가전제품과 거의 일치한다.

세탁기는 디자인과 용량, 기능, 유지관리 측면의 불편사항이 골고루 조사되었는데, 세탁기는 우리나라 4인 표준가구에 맞는 용량과 신체 건강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품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인 사용자가 여러 측면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청소기는 특히 디자인과 사용자 측면의 불편사항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무겁고 큰 디자인의 청소기를 허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김치냉장고도 디자인이 문제점으로 많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는 김치냉장고의 깊숙한 곳에서 김치를 꺼내기 힘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자렌지의 불편사항에는 전자렌지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사

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조작버튼이 작거나 쉽게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4. 노인단독가구의 주생활행위 특성

가구·가전제품 사용과 주생활행위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생활행위의 분석은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가구·가전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조사 결과 노인에게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생활행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식사와 관련된 행위를 살펴보면, 밥하는 방법이나 밥 먹는 방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전기밥솥을 사용하여 취사를 하고, 전기밥솥의 보온기능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끼니때 꺼내 먹는 행태를 보였다. 식사하는 장소는 주로 부엌 또는 식당이지만, 소득이 낮고 허약한 노인일수록 거실이나 침실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1인가구일 경우에도 부엌외의 거실이나 침실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간식 먹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인데, 주로 간식은 거실 또는 부엌·식당에서 먹으며, 식사행위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이거나, 허약한 노인의 경우, 거실보다는 자신의 침실(30%)에서 간식을 먹는 비율이 높았다. 공간사용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김미희 외, 2005)결과에서 안방(침실)에서 식사나 간식을 먹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의 0.7%, 1.9%였음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침실에서 식사행위(주식:12.3%, 부식:19.7%)는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그리고 설거지 유형은 대부분 설거지 나올 경우 그때그때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인가구일 경우에는 설거지 거리를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노인이 33.3%로 2인가구에 비해 많았으며, 이는 1인가구의 설거지양이 2인가구에 비해 적고, 설거지 거리가 쌓여도 신경 쓸 동거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빨래의 경우는 손빨래만 하는 노인, 기계빨래만 하는 노인, 둘 다 하거나 둘 다 안하는 노인,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 월소득, 가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노인의 경우 가사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빨래도 하지 않는 경우가 82.6%였고, 소득이 높은 경우, 손빨래와 기계빨래를 병행하거나 빨래행위를 하지 않는 노인이 많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손빨래와 기계빨래 중 선호하는 것을 한 가지만 하는 노인이 많았다. 손빨래는 주로 욕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빨래를 널 때는 건조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건강상태에 따라 빨래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였는데, 건강한 노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 건조대를 이용했지만, 허약한 노인들은 빨래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은 주로 청소기, 막대걸레,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가사작업과 마찬가지로 남성 노인의 대부분은 청소를 하지 않았고, 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청소기를 사용했다. 청소 행위는 가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인가구는 막대걸레와 청소기를

표 3. 보유가전제품 사용시 불편사항

가전	불편사항*											
	전체		디자인		용량		기능		유지관리		사용자측면	
	n	%	n	%	n	%	n	%	n	%	n	%
냉장고	10	100.0	3	30.0	2	20.0	3	30.0	2	20.0	0	0
전자렌지	14	100.0	1	7.1	0	0	6	42.9	1	7.1	6	42.9
가스렌지	10	100.0	1	10.0	0	0	1	10.0	2	20.0	6	60.0
전기밥솥	10	100.0	2	20.0	0	0	7	70.0	0	0	1	10.0
세탁기	18	100.0	5	27.8	5	27.8	3	16.7	3	16.7	2	11.1
TV	8	100.0	1	12.5	0	0	3	37.5	0	0	4	50.0
에어컨	7	100.0	1	14.3	0	0	5	71.4	0	0	1	14.3
전화기	5	100.0	0	0	0	0	3	60.0	0	0	2	40.0
컴퓨터	1	100.0	0	0	0	0	0	0	0	0	1	100.0
김치냉장고	14	100.0	12	85.7	1	7.1	0	0	1	7.1	0	0
식기세척기	6	100.0	2	33.3	1	16.7	0	0	3	50.0	0	0
선종기	2	100.0	0	0	0	0	2	100.0	0	0	0	0
청소기	17	100.0	9	52.9	0	0	3	17.6	1	5.9	4	23.5

* 자유응답식으로 조사된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유형화하여 제정리하였고,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 크기, 모양, 조작버튼, 글씨 등의 디자인상의 불편사항
- 용량 :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생기는 불편사항
- 기능 : 필요한 기능이 없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사항
- 유지관리 : 사용시 사용비용이 많이 들거나,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생기는 불편사항
- 사용자측면 : 사용자가 조작에 익숙하거나, 사용법을 몰라서 생기는 불편사항

주로 사용하는 반면, 1인가구는 빗자루와 청소기, 물걸레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약복용 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특징적 행위로 여겨지는데, 먼저 약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1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들이 약 90%이고, 이중 2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도 전체의 약 50%이다. 복용약 개수는 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고소득에 비해서는 저소득 노인이, 2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인 경우의 복용약 개수가 많았다. 노인들의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약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보관하는 장소도 중요하다. 주로 식탁 위 잘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하며, 월소득과 가구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인가구, 소득이 낮은 노인은 식탁 위와 더불어 자신의 침대나 요 근처에 두는 비율이 높았다.

샤워·목욕행위도 노인들만의 고유 특성을 보이는데, 샤워·목욕시 서서하는 노인보다 목욕용 의자에 앉아서 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이고 75세 이상이며 저소득층, 1인가구인 경우에 샤워·목욕을 목욕용 의자에 앉아서 하는 특징을 보였다. 샤워·목욕시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샤워기였지만, 월소득, 건강상태, 가구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목욕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향과 비슷하게 저소득이며 허약하고 1인가구일 경우 샤워기보다는 대야·바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화하는 행위는 1일 2-5회 정도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었으며, 거의 안하는 경우도 42.5%였다. 전화하는 빈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 노인의 경우가 남성에 비해 전화빈도가 많으며, 2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전화빈도가 많았다. TV시청은 노인의 여가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행위인데, 주로 침실과 거실에서 이루어지며, 연령이 높고 저소득층이며 1인가구이고, 허약한 노인의 경우가 거실보다는 침실에서 TV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행위와 가구 및 가전제품의 사용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단독거주자를 지원하는 가구·가전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단독가구의 가구 보유 현황은 다른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구 형태 측면에서 좌식가구의 보유율이 비교적 높았다. 가전제품 보유 현황도 일반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용측면에서 노화로 인한 사용상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가구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 안하는 제품들이 다수 있었다. 가구·가전제품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디자인 측면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치수에 맞고,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디자인된 제품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고,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며, 단순한 버튼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사, 빨래, 청소, 약복용, 목욕, 전화, TV시청 등의 노인 주요 주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 주요 주행위는 성별, 월소득, 건강상태, 가구유형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유형과 월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노인 사용자의 세분화를 통해 사용자별 주행위 특성을 반영한 가구, 가전제품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상의 특성을 배려한 제품설계를 통해 노인단독가구를 지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형구·강봉임·이청웅(2005),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3), 1-7
2. 김미희·이유미(2005), 중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대표적인 주생활행태-3침실형30평형대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6), 21-27
3.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수요예측팀(2006), 가전기기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조사, 통계청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주요 주행위 특성*

(N=74)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월소득				건강 상태				가구 유형				전체			
		여		남		75세미만		75세이상		저		고		건강		허약		1인				2인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밥 하는 방법	전기밥솥	42	89.4	2	100.0	22	91.7	22	88.0	32	86.5	12	100.0	20	87.0	24	92.3	24	85.7	20	95.2	44	89.8
	압력솥	2	4.3	0	0	1	4.2	1	4.0	2	5.4	0	0	0	0	2	7.7	1	3.6	1	4.8	2	4.1
	기타 솥	3	6.4	0	0	1	4.2	2	8.0	3	8.1	0	0	3	13.0	0	0	3	10.7	0	0	3	6.1
	전체	47	100.0	2	100.0	24	100.0	25	100.0	37	100.0	12	100.0	23	100.0	26	100.0	28	100.0	21	100.0	49	100.0
밥 먹는 방법	전기밥솥에서 끼니서	40	78.4	21	91.3	32	84.2	29	80.6	41	77.4	20	95.2	33	89.2	28	75.7	22	73.3	39	88.6	61	82.4
	전자렌지에 테워서	7	13.7	2	8.7	4	10.5	5	13.9	8	15.1	1	4.8	2	5.4	7	18.9	4	13.3	5	11.4	9	12.2
	찬밥 그대로	1	2.0	0	0	1	2.6	0	0	1	1.9	0	0	0	0	1	2.7	1	3.3	0	0	1	1.4
	기타	3	5.9	0	0	1	2.6	2	4.8	3	5.7	0	0	2	5.4	1	2.7	3	10.0	0	0	3	4.1
식사 하는 장소	전체	51	100.0	23	100.0	38	100.0	36	100.0	53	100.0	21	100.0	37	100.0	37	100.0	30	100.0	44	100.0	74	100.0
	부엌/식당	36	70.6	17	77.3	29	76.3	24	68.6	35	67.3	18	85.7	29	78.4	24	66.7	18	60.0	35	81.4	53	72.6
	거실	7	13.7	3	13.6	6	15.8	4	11.4	8	15.4	2	9.5	5	13.5	5	13.9	6	20.0	4	9.3	10	13.7
	침실	7	13.7	2	9.1	2	5.3	7	20.0	8	15.4	1	4.8	2	5.4	7	19.4	5	16.7	4	9.3	9	12.3
	기타	1	2.0	0	0	1	2.6	0	0	1	1.9	0	0	1	2.7	0	0	1	3.3	0	0	1	1.4
간식 하는 장소	전체	51	100.0	22	100.0	38	100.0	35	100.0	52	100.0	21	100.0	37	100.0	36	100.0	30	100.0	43	100.0	73	100.0
	부엌/식당	18	40.0	6	37.5	11	36.7	13	41.9	16	35.6	8	50.0	14	45.2	10	33.3	10	38.5	14	40.0	24	39.3
	거실	17	37.8	8	50.0	15	50.7	10	32.3	18	40.0	7	43.8	14	45.2	11	36.7	7	26.9	18	51.4	25	41.0
간식 하는 장소	침실	10	22.2	2	12.5	4	13.3	8	25.8	11	24.4	1	6.3	3	9.7	9	30.0	9	34.6	3	8.6	12	19.7

